글로컬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고 혜 림*

<목 차>

1. 세계문학의 시대와 정체성
2. 글로컬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
3. 문화적 중국과 중국문학 재편
4. 글로벌 정체성의 양상과 특징
5.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현재와 미래

1. 세계문학의 시대와 정체성

화인 디아스포라는 세계 속에 흩어져 국경을 넘어서는 중국계 이민자 집단으로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재적 시점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비교적 거대한 규모로 큰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세계, 즉 글로벌한 논의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역을 넘나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학에 관한 논의가 영미권과 한국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얼핏 유사하지만 그 주체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문학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정하여 학계가 주도하는 서구와, 기획과 출판으로 이어지는 출판사 중심의 한국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1] 세계문

www.kci.go.kr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현대중국문화연구실 연구원

1) 김용규, <서론>, 김경연・김용규,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10쪽.

학이 그 시작점에서 기획이 되었든 혹은 자생적인 발생과정을 거쳤든 간에 이미 세계문학으로 자리매김한 현재적 시점에서는 이 세계문학의 범주와 포괄적인 성격을 중립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글로컬은 다양한 의도와 가능성을 가지고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지만 정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또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문화학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지만 중국현대문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리 익숙한 용어는 아닌 듯하다. 일례로 국내 학술논문을 찾아보면 '글로컬'과 '중국', '문학' 등을 동시에 키워드로 검색하면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반면 '디아스포라', '중국문학'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0년도 이후로 관련 연구의 시작을 찾을 수 있으며 2007년부터 폭발적으로 관련연구가 증가됨[2]을 알 수 있다.

김성수는 "'글로컬'은 보편화된 국제적 감각으로서의 글로벌과 지역적으로 특수한 정서인 로컬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문화변용의 내적 논리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화(-sation)'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글로컬'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특정 문화콘텐츠나 문화상품을 통해 외적으로 발현시켜 나온 결과적 의미로서의 세계지역'화' 혹은 지역세계'화'이다"[3]라고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 용도와 사용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글로컬 개념이 보편화된 글로벌과 개별적 사례인 로컬의 구분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글로컬 현상을 중국문학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문학을 매개로 하여 화인 디아스포라의 범주와 전지구화 현상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

2) www.riss.kr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2001-2006년까지 6년 동안 6편, 2007년 5편, 2008-2017년까지 10년간 87편이 검색되었다.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 해 평균 1편인데 반해,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는 매해 평균 8.3편이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김성수, <두 개의 글로컬라이제이션, 두 얼굴의 글로컬-글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을 배경으로 한 문화콘텐츠 기획의 허와 실>, ≪글로벌문화콘텐츠≫통권 제10호, 서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2, 107쪽 주석.

www.kci.go.kr

로컬 정체성을 화인 디아스포라와 연결지어 사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 혼란과 수립의 과정은 경계나 틈새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잠재적인 디아스포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타진이다.

정체성에 관해서 그 형성과정은 심리적 정신병리학적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문화간 간섭과 충돌, 융화의 과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글로컬적 혹은 가변적 정체성, 또는 글로컬 정체성 등으로 보다 열린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문학과 화인문학을 다루고 있는 연구 가운데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세계문학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루면서 문학작품을 예로 든 연구는 아직 없다. 일단 기존의 연구에서 화인문학을 다룰 때 그 의미와 범주에서 중국대륙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지를 제외하고 해외 화인들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광의의 의미로 확장하여 살펴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 즉 전세계적으로 중국대륙 및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잠재적 이주자들도 모두 포괄하여 '화인'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의 의미적 확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학자와 연구단체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화인 개념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드디어 세계문학의 시대에 이르렀고 이제 그 세계문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편의상 구분되는 지역단위의 작가들에 대한 정체성, 그들 문학에서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www.kci.go.kr

2. 글로컬리즘과 디아스포라

전지구화, 즉 글로벌리즘의 담론에 의하면 국경을 경계로 한 시대적 소명은 이미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유럽연합과 같은 형태 혹은 그와 유사한 글로벌적 협치에 의해 통치되는 제국의 시대로의 이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형성되어 온 수많은 경계와 정체성들은 글로벌의 담론 속에서는 항구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더 이상 하나의 개인을 설명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어떠한 것이 되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글로벌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줄곧 세계화의 이름 아래 조명 받아 온 글로벌과 이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로컬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이 둘의 의미 변화가 시대에 따라 과연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2.1 글로컬리즘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의 화두는 근대화였다. 그것이 서구를 닮은 근대화이든 서체중용 혹은 중체서용의 근대화이든 간에 5.4시기를 전후한 지식인들에게는 근대화와 현대화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청나라 왕조의 몰락과 신중국의 건설에 있어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중국적 정체성의 혼란기였다. 저항하든 순응하든 근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이었다. 20세기 현당대[4] 격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대륙의 가장

www.kci.go.kr

4) 중국대륙문학사의 구분방식은 20세기의 굵직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기점을 근거로 이에 맞추어 문학사도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1840년-1919년을 근대, 1919년-1949년을 현대, 1949년-지금까지를 당대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여 근대, 현당대로 부를 수도 있다.

큰 고민은 과거 19세기 이전까지 아시아에서 누리던 지위와 영화를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20세기 동안 유럽과 미국을 대표로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왔고, 그들은 자신들이 모범이면서 동시에 유일무이한 지향 모델인 것으로서 세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서구는 동양이 자신들을 닮으려 하고 심지어는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뿌듯한 자만심과 동시에 위기를 함께 느꼈다. 애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파하고 그 우월성을 홍보하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동양이 저만치 먼 거리에서 자신들의 뒤를 따라올 때 느꼈던 안도감과 우월감은 이제 머지않아 20세기 내내 지배적인 권력을 과시해왔던 자신들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극도의 우울함과 거부감으로 드러나게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중국은 그들이 과거 누렸던 지위와 영화를 되찾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 속에서 패권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화의 극단에 이른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글로벌화를 통한 한 종류의 문명, 혹은 하나의 정체성과 같은 획일적인 보편성만을 강조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세계문학과 로컬의 문화 번역>의 서두에서 김용규는 이렇게 말한다.

> 로컬적인 것은 그동안 로컬을 지배해온 국민국가의 정치적·행정적 통제와 국민 문화의 이념적 지배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해가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속으로 급속하게 편입되어가고 있다. 이런 전환은 로컬적인 것의 위상과 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근대성 속에서 국민국가와 국민 문화는 로컬과 그 문화를 자신의 하위 단위로 설정하는 한편, 글로벌과 로컬 간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면, 이제 그러한 역할은 약화되거나 불안정한 것이 되어가고, 로컬과 글로벌 간의 관계 또한 매개 없이 보다 직접적인 접촉의 성격을 띠어간다. 오늘날 로컬과 로컬 문화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전환 과정에서 로컬의 이슈들이 부각되거나 문제적인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아리프 덜릭에 따르면 오늘날 로컬과 로컬 문화는 하나의

www.kci.go.kr

다만, 이것은 중국대륙의 문학사를 특별히 언급해야 할 때만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곤경의 장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의 장이기도 하다.[5]

이처럼 로컬은 글로벌화의 극단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가능성의 장이자 접전의 현장이다. 내재한 복합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다른 로컬들을 향해 열려있는 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실로 새롭게 바뀐 패러다임이자 담론은 글로벌화와 로컬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글로컬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마이클 크로닌이 말한 미시적・프랙탈적 공간[6][7]은 바로 로컬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간에서 우리는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담론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컬의 가능성과 함께 "로컬적이면서 글로벌적인" 것의 존재 혹은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시에 글로컬리즘의 테두리 속에서 글로컬을 얘기하고 또 로컬적 공간에서 글로벌적 공간과 소통하고 혼종되고 있는 주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로컬적 공간들은 개방성과 복합성, 혼종성, 네트워크성 등으로 설명된다. 이것이 곧 그 공간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개개인의 정체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5) 김경연・김용규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35-36쪽.

6) 마이클 크로닌, 임효석 역, ≪팽창하는 세계≫, 현암사, 2013, 1장 <세계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참조.

7) "크로닌은 프랙털적 차이화를 '유한한 공간 속의 무한한 길이', '작은 축소된 공간의 풍요로움', '차이와 다양성에 의해 형성된 지역성'과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이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로컬 공간에도 적용해볼 만하다. 크로닌의 미시적 코스모폴리턴적 시각으로 볼 때, 로컬 단위 또한 국가적이고 초국적인 단위 못지않게 차이와 다양성을 내포한 프랙털적 차이화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 코스모폴리턴적 시각은 로컬적인 것의 차이와 복합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관계들의 트랜스로컬적 확산, 즉 로컬적이거나 또는 글로벌적인 것이 아니라 로컬적이면서 동시에 글로벌적인 연대의 확립"을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김경연・김용규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40쪽.

2.2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의

중국계 사람들의 해외 이주 혹은 거주는 한국 일반 대중에게 '화교(華僑)'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화교란 과거 다수의 산둥 지방 출신 중국인들과 기타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국적은 자국으로 그대로 두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물론 지금도 중국대륙에 국적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화교가 아닌 사람들의 비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교육, 직업 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과거 화교(華僑)로 불리던 중국계 해외 거주자들은 그들이 '교(僑: 국적)'를 여전히 고향의 것으로 유지한 채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로,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혹은 반영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계 이주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더욱 원활한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활동을 위해서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또 국적을 바꿀 수도 있다.

우선 화교는 한국인들이 대중매체와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족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일컫는 말로 주로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화교의 사전적 의미는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사회적・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의미한다. 조상이 중국인인 사람들은 '화예(華裔)'라고 하는데 이들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혼혈・동화되어 본국과의 연관성이 약하며 상당 부분 현지화된 사람들도 있다.

화인은 이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로써, 국적의 보유 유무는 논외이며 중국대륙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 이주해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삶을 살아가는 중화권 중국계 혈통의 사람들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중국인이라고 세계 어디서나 마주하게 되는 중국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는 화인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www.kci.go.kr

화인 디아스포라는 과거 유대인 디아스포라와는 다른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인다. 이들은 외양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로부터 언어적 차이의 이질성을 극복해야할 필요와 요구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 대체로 새로운 언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혼종적 환경에 노출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여러 층위의 혼종화 과정을 겪게 된다.[8)]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주의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최초의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은 고향을 떠나온 데서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 있다. 과거와 달리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고국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배제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심리적으로 고향과 고국을 그리워하고 익숙한 공간으로부터의 분리에서 오게 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두 번째는 이주국에서 주변인이자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소외감이 있다. 이주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는 더불어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전진하는 그들의 잠재력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주 이후, 디아스포라로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문화적 혼종과 이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속적인 주류 사회로의 편입 혹은 동화 요구와 수용 및 저항에 관계된 결정의 문제들이 남게 된다.

중국현대문학의 21세기적 요구는 내부로 귀결되고 결속력을 요구하던 20세기적 형태에서 외연의 확장, 개념의 광의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화인에 대한 관심, 화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의 확산 등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보게 될 중국이라는 용어로부터 환기되는 중의적인 사용법, 그리고 변화된 위상 등과도 함께 연관지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8)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쪽.

2.3 글로컬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접점

글로컬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하는 교집합 혹은 접점은 바로 그 출발지인 정체성문제로부터 한 바퀴를 돌아와 다시 정체성 문제로 귀결되는 순환고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나를 나인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과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이것은 기존의 관념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쉽게 정의내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를 지나면서 세계가 경험한 급속한 변화는 정체성 역시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글로컬리즘이라는 시대적 담론과 전세계에 만연한 이주 열풍 속의 한 집단인 화인 디아스포라의 접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보자면, 글로컬리즘은 글로벌화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아 오지 못했던 로컬에의 관심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로컬의 특수성으로부터 다시금 글로벌리즘을 재조명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새로운 시대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이 지금까지 중국대륙의 문학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기타 지역의 문학을 역외, 해외, 주변으로 구분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주변부로 치부되었던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신분적 정체성과 그들의 문학과 예술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은 다시금 중심에 의해 중심으로 편입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3. 문화적 중국과 중국문학 재편

www.kci.go.kr

중국이라는 영토적, 국가적 개념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문화적 의미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을 주름잡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상당부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 국가에 소속되었다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세계는 눈에 띌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다.

3.1 중국의 의미 변화와 문화적 중국

'중국'을 더 이상 과거 우리가 부르던 중국대륙 중심의 중국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게 되었다. 근대화 속에서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과 유럽에 내어주었던 세계의 중심의 자리를 머지않아 되찾아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중국이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서의 중국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상이다.

문학에 있어서 중심과 주변이 해체되고 중심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재편성되는 현상 역시 만연한 것이다. 이것은 문학 연구의 경계도 허물고서 문화학과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기존에는 경계가 분명했던 학문들과의 교류로 다층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중국대륙이 중심이 되고 기타 지역은 모두 주변화 되는 설정을 벗어날 필요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심과 주변의 이항대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편견과 차별의 현실적인 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이고도 의식적인 교정을 지향하자는 것이다.[9)]

www.kci.go.kr

9)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66-67쪽.

사실 '중국'을 하나의 역사 서술 공간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불만은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민족국가로 불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주, 몽고, 티베트도 본래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단위로 삼는 역사 서술 이론이 제시되는 등[10] 중국이라는 영토적, 역사적 개념에 대한 질문이 수없이 던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쪽 학자들도 현재의 중국 영토로서 역사적 중국을 획정하려는 중국대륙의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문화적 패권에 대해 저항하면서 세계사의 관점에서 아시아, 중국, 또 세부적으로 타이완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3.2 중국문학의 정의 변화와 권력 자장

그렇다면 소위 '중국문학'이라고 불러오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한 국민국가의 경계 속에서 그들이 창작해 낸 문학적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지을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중국을 역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의문을 유발한다. 그것은 곧 연달아 꼬리를 무는 질문들, 중국문학은 무엇인가, 중국작가는 누구인가, 중국문화는 무엇인가 등등으로 우리는 인도한다. 다른 질문들은 차례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중국과 바로 연관되는 중국문학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신중하게 언급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칫 중국문학이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 로컬적으로 가능성을 가진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들이 일시적으로 이미 이미지 확정된 중국대륙의 문학 속으로 포섭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의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중국대륙으로부터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예술 자산으로서의 함축적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www.kci.go.kr

10) 거자오광, 이원석 역, ≪이 중국에 거하라≫, 글항아리, 2012, 21-26쪽 참고.

중국문학이라는 것이 곧 세계문학과 같은 중립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앞으로 더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대륙과 북미 지역의 학계, 타이완과 홍콩 일대의 지식인 및 기타 지역의 중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는 '중국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문과 범주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국내외학회, 포럼, 문학토론, 대학의 문학 수업에서 다양하게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중국문학을 보다 자신의 편의와 구미에 맞도록 끌어들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중국대륙은 그 용어의 태생적 배경을 근거로 중국대륙이 중심이 되는 용어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미권의 화인 학자들은 그것이 중국대륙만의 것은 아님을 전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일면 '한자문화권'이라는 용어와 닮은 '화어계문학'이라는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史書美와 王德威를 중심으로 한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두 학자도 각자 주장하는바 뿌리와 중심과 미래적 중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는 있다. 반면 한국에서 몇 군데 대학연구소[11]를 기반으로 한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주장되기도 한다. 언뜻 보면 용어 정의, 범주 구분 등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달라진 상황은 곧 과거처럼 손쉽게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중국대륙의 많은 학자들은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에서 고향으로 귀환하고 싶은 의식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민족주의 강화의 문화 전략으로서 중국대륙 자체의 문학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장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방도로써,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와 그들의 문학을 끌어들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대륙에서 증거로 삼는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주 후 계속된 타자의식 속에서 중국대륙을 고향으로서 그리워해야

11)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은 타이완과 홍콩 및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작품 번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에서는 인천 지역 화교사회와 문화 연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중국의 지식 네트워크 방면으로 오랜 기간 연구 중에 있다.

www.kci.go.kr

하게 된다. 하지만 실상 동남아시아 혹은 북미 지역의 많은 화인들은 이주한 곳에서 잘 적응하고 오히려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약화된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장을 끌어갈 수는 없다.

중국대륙에서는 자신들의 문학·문화적 영역의 확장과 세계 속 다양한 화인 디아스포라들까지의 포섭을 전제하고 있다. 타이완과 홍콩은 이주한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뿌리가 그들의 영토로부터 뻗어 나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또다시 그 뿌리가 중국대륙까지 거슬러 올라가 현재 중국대륙에서 주장하는 중화주의로 편향되게 흐르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때로 중국작가, 타이완 작가, 홍콩 작가, 혹은 중국인 작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에 여전히 익숙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4. 글로컬리즘과 정체성

아민 말루프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을 검사하듯이, 나는 이따금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검사'라고 부르는 것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나 자신 속에서 어떤 하나의 '본질적인' 소속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의도하는 바는, 내 기억을 뒤져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밝혀내어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은 채 조합하고 정리하려는 것이다.[12] 아민 말루프가 말하는 소위 '정체성 검사'의 목적은 곧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를 규정지을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특수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함께 공유하는 동포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자문하면서 이미 답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화인 디아스포라로 옮겨오게 되면 다른 의미가 된다. 화인

12)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25-26쪽.

www.kci.go.kr

디아스포라는 그 수가 적지 않다. 물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개개인의 이력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수백만, 수천만 가지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자연스럽게 그 집단 내에서 상상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게 된다. 상상된 고향, 민족, 공동체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이것들은 역사로부터 오는 수직적 문화적 공유요소이거나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는 수평적 문화적 공유요소이다. 종횡의 인류 문화가 디아스포라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역할을 한다.

정체성은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도 있다. 중국대륙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공유하는 정체성이며, 이는 문화권의 영향에 놓인 이주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화인 디아스포라가 중국(대륙)인을 주된 것으로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오류가 있는 명제가 된다. 하지만 화인 디아스포라가 중국(대륙)인과는 아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유기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을 흑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게 될 때 폭력성과 공격성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용인하는 인격들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바로 미래적인 가치 중의 하나로 필자 역시 믿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 즉 경계선 위에 있는 존재들[13]이 바로 세계 곳곳의 각각의 나눠진 사회 속에서 두 공동체의 경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인종이나 종교 혹은 기타 다른 요소에 의해 균열된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중국대륙에서 조사되는 자료에 따르면 국외 화인은 총 6천여만명[14]으로 추

13)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51쪽.

14)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의 해외교포관련업무사무실의 자료에서는 화교화인의 총수가 6천만명에 달하여 주로 동남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지로 이주를 한다고 한다. 2013년 미국, 캐나다, 호주 세 개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들은 13만3천명에 이른다. 여전히 미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캐나다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하지만 영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도 2013년부터 1년간 14만명에 이르

산된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를 훨씬 넘어서는 수의 사람들이 전세계 화인 디아스포라의 규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이 바로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지역이며 브라질, 페루와 같은 남미 지역도 적지 않은 이주자들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의 화인이 규모가 두 번째로 크며, 마지막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화인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기타 지역은 유럽과 호주, 러시아와 같은 지역들이 있다. 언급된 지역들 가운데서도 화인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었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장기적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경험하여 이제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이미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린 혼종적 문화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나누어 북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 글로컬 정체성이란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이주를 통해 축적한 문화적 경험들로 재구성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혼종화된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들의 등장은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었던 국가나 영토의 틀로 규정되었던 구성원이라는 의미의 약화되고, 종족, 인종, 지역공동체, 동일 언어 사용자들의 공동체 혹은 기타 문화적인 형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지난한 삶의 추구

는 것을 보면 유럽쪽으로의 이민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일본에 새로 이주한 중국인의 수는 98만명이며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51만명, 필리핀 20만명, 베트남 7만명이다. (http://qwgzyj.gqb.gov.cn/yjytt/183/2630.shtml, 2016년 10월 30일 검색)

www.kci.go.kr

의지 속에 구축된 저들의 정체성은 저만치 다가서 있지만 직접 손이 닿지 않는, 그러나 거칠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으로 이미 파악된 '가변적 정체성'인 것이다.[15]

국경의 이동이 없더라도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화시켜서 말하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국적, 인종, 종교, 학력, 거주지, 연령대, 성별, 소속, 직업, 경제력, 인간관계, 신념 등등 끝없이 나열해도 그 사람으로 완전히 조합되지 않는 미진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미 확고하게 규정될 수 있는 영역도 물론 있지만 아직 미개척의 영역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체성의 영역이 있다. 고정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영역인 일면 글로벌로, 아직 미개척의 개방되고 혼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은 로컬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가진 이런 복합적인 특징을 완전히 설명하면서 디아스포라와 같은 보다 역동적이고 문화의 접전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에는 가변적이라는 부분 외에도 글로컬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가변적 정체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글로컬적, 혹은 글로컬 정체성으로 부르는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라면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유사한 이력을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경험한 것들은 역동적이며 가변적이고 또 결코 고정되지 않은 특징을 가진 정체성으로 보인다.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며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어려움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났으며,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고향을 더 이상 고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16] 시대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글로컬적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잠재적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전지구화의 영향 하에 놓인 세상은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체성의 위기 상황은 전세계에 만연한 것이며 이는 이주자로서의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특히 가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인 디아스포라들

www.kci.go.kr

15)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년, 18쪽 참고.
16)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년, 52쪽.

이 그들만의 독특한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각자 경험하고 새롭게 습득한 문화적 정체성의 뒤섞임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이주를 경험한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혼종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문학"[17]이라는 정의에 따라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컬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써 지역 단위의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다.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글은 대체로 자전적 글쓰기의 경향[18]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신들의 신분적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은 어쩌면 이 사람들의 문학적 결과물 역시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로 옮겨다 놓게 되었을 것이다. 작가 자신의 이민의 이력, 동포에 대한 사랑, 떠나 온 고향에 대한 애정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정체성 확인에의 욕구 등의 문제의식도 드러난다.

4.2 북미 지역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과 정체성

미국의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용어의 식별 문제가 있어서인지 '미화'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도 캐나다 화인들의 경우는, 캐나다의 중국어 표기인 지아나다(加拿大)의 한자 첫 글자 '가'와 화인의 '화'를 합쳐서 '가화'로 부르곤 한다. 주지하다시피 북미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곳을 일컫는데, 이주 화인 디아스포라 6천만명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에서도 비교적 문학적 성취가 있고 중화권과 영미권에서 규모의 독자를 보유한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로는 1910-30년대 초기 중

17)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3쪽.
18)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73쪽.

www.kci.go.kr

국대륙권의 유학생 출신 작가들, 1960-80년대의 타이완 유학생 출신 작가들과 이민 2, 3세대 화인 작가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중국대륙 이주 화인 작가들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캐나다는 홍콩으로부터의 이주 화인들 중에서도 특히 학계와 문단에 일찍이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1960-80년대 작가들로는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 에이미 탄(Amy Tan, 譚恩美), 맥신 홍 킹스턴(M. H. Kingston, 湯亭亭)이며, 1980년대 이후는 嚴歌苓, 哈金과 같은 작가들이 있다. 이중 白先勇, 張系國, 於梨華, 聶華苓은 중국대륙과 타이완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자신들이 유학생 신분의 이민 1세대이다. 이들 네 작가들이 주로 중국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에이미 탄과 맥신 홍 킹스턴은 이민 2세대, 2.5세대로 주로 영어로 작품을 써서 차이를 보인다. 에이미 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특히 이민 1세대인 부모 세대와 2세대로 넘어간 자녀 세대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갈등 구조와 화해의 서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현재의 갈등, 과거의 회상, 그리고 화해로 이어지는 소설의 구조는 영화화 되었을 때 더욱 명확한 인물 형상화를 통해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설가 於梨華는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에서 디아스포라 신분의 주인공인 牟天磊를 등장시켜서 이주국에서도 고국에서도 이방인의 심정을 느끼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牟天磊의 부모 세대가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했으며 자신은 학업을 위해 혈혈단신 미국으로 이주한다. 서구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편 그들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지난 10년, 그리고 고국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설명한다. 백인 사회 속의 아시아 인종이 겪는 차별에 대한 경험이 현재의 자신이 이토록 소극적이고 무감각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혼종적 문화경험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고향에서는 또 자신이 서구 사람인양 대접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이질감을 가져다준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전혀 속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찾기 쉬운

www.kci.go.kr

데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문화적으로 혼종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 문제, 은사의 죽음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접하면서 다시 자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聶華苓은 ≪桑青與桃紅≫에서 디아스포라의 분열된 신경증적 증세를 주인공의 모습에 담았다. 중국대륙에서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다중적인 인격으로 변화한다.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키지 못하고 여러 인격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도 물론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갈등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 주인공 桑青은 결국 미친 여자가 되어버린다. 실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게 되고 두 가지 인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해리성 주체성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마도 작가는 변화하는 정체성과 상반된 문화적 경험이 자신을 둘로 나누는 듯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이 역시 디아스포라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정체성 형성 및 수용의 양상을 담아내고 있어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중국대륙에서 바로 이주한 대륙 출신의 디아스포라 작가로는 옌거링과 하진이 1990년대 이후로 주목할 만하다. 옌거링 문체의 대중성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 전개는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또 다른 대중적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하진의 경우, 이주 이후 주로 영어로 창작을 하여 영미권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진과 같이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중국어 혹은 영어로 자신의 문학창작용 언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모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주 1세대들에서는 주로 중국어를 이용한 창작이, 이주 2세대와 이주가 장기화 되어 더 많은 세대교체를 경험한 화인들에게서는 영어를 이용한 창작이 두드러진다. 嚴歌苓은 디아스포라의 직접적인 심리를 묘사한 작품으로 보다는 국내에 ≪나의 할아버지가 탈옥한 이야기≫의 영화판 ≪5일의 마중≫ 원작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녀 역시 주목받는 대중적인 작가이며 이야기의 긴박감과 서사의 흥미로 많은 대

www.kci.go.kr

중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하진은 ≪멋진 추락≫에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부유하는 주인공들을 단편으로 묶어 내고 있다. 1960-80년대 작가들보다 한층 작중인물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그는 작중 인물들을 통해 타국에서의 외로움, 불편함, 괴로움, 힘듦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캐나다는 陳浩泉, 張翎, 亞堅, 劉慧琴 등이 있다.[19] 캐나다의 백인 종족주의자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국계 이민자들이 오직 돈만을 벌기 위해 온 것처럼 간주하거나 심지어 백인의 일자리를 뺏어 가는 이방인이라는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과 차별 가운데서도 캐나다 화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왔다. 이들의 예술 활동 가운데서도 문학 작품의 창작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였으며, 그 성과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 확산되었다. 이런 방면에서 밴쿠버 지역의 ≪星島日報≫, ≪明報≫, ≪世界日報≫, 토론토의 ≪成報≫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국어 신문은 캐나다 지역의 화인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와 지역의 화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왔다.[20]

陳浩泉은<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에서 홍콩 출신 아버지와 아들, 타이완 출신 어머니와 아들의 재혼가정을 그리고 있다. 부모가 각자 타이완과 홍콩을 오가는 동안 형제이면서 형제 아닌 두 아이 가운데 동생에게 응급상황이 생겼고 형 아닌 형이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汪文勤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또 무엇인가>는 캐나다 이민 이후 중국적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과 영어식 이름을 짓고 더 나은 삶을 쫓아가는 사람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이 역시 디아스포라들이 이주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일 것이다.

---

19) 이 외에도 馮湘湘, 阿濃, 葛逸凡, 陳麗芬, 盧因, 陳華英, 林婷婷, 孫博, 李彥, 汪文勤, 慧卿, 曹小莉 등이 있는데 캐나다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김혜준, 고찬경, 고혜림 역,≪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캐나다 화인 소설선≫, 지만지, 2016.

20)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集≫,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11-12쪽 참고.

서구에 뿌리박힌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은 아시아계 이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열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오랜 동안 주류 사회에의 편입이 힘들었다.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출발지인 고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상향을 이주를 통해 찾으려고 했으나,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부유감과 이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집단으로 범위를 넓혀 보게 되면 오히려 보편적인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세계화 관점에서 이들을 경계지역이나 접촉지대에 놓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주변화를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위치를 로컬에 놓고 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은 세계 각 지역에 놓여 있는 특수한 로컬들이다. 이 로컬들의 집합은 실상 한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4.2 동남아시아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과 정체성

동남아시아 지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로, 이 지역에서도 비교적 가시적인 문학적 활동이 관찰되는 곳은 말레이시아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쪽의 화인들은 규모가 1천만 명에 이르지만 이미 중국어 구사 혹은 전통명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으며 주류사회의 차별과 배제 속에서 "위축된 화인사회"[21]를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눈에 띄게 부를 축적한 중국인들은, 다른 종족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쑨원(孫文)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국민당을 추종하는 세력과 193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한 毛澤東의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

www.kci.go.kr

21) 김혜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사회 정착과 화인정책 비교>, ≪평화학연구≫ 제15권5호, 2014.

력, 영국 식민지정부에 말레인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졌는데, 말레이시아 지역이 아닌 중국 대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1920~30년대 말레이-중국인들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하게 했다.[22]

말레이시아 문학은 말레이시아의 중국어 발음인 마라이시야(馬來西亞)의 '마'와 화인의 '화'를 합쳐서 '마화문학'으로 부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는 黃錦樹와 李永平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賀巾, 梁放, 溫祥英, 商晚筠, 張貴興, 賀淑芳 등이 있다.[23] 애초에 李永平은 보르네오가 말레이시아에 편입될 때 미련 없이 국적을 버리면서 '문화 중국'을 찾아 타이완으로 갔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타이완을 선택한 것은 자신을 '외성인(外省人: 타이완 섬의 토착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을 통칭)' 범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언어가 통용되는 보르네오가 아니라 타이완에 나와서 '문자' 및 '문장 수련'에 대한 절실함을 깨달은 李永平이 문자에 천착하고 글쓰기를 다듬을수록, 타이완 사회에서는 밖에서 들어온 서자가 중문 수련을 통해 일약 '혈통적 적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사기도 했다.[24] 자신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의 구분선을 긋는 행위가 이토록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와 갈등은 항시 존재하는 문제가 된다.

≪물고기뼈: 말레이시아 화인 소설선≫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는 눈에 띠게 말레이시아에서의 화인의 역사성이 짙은 사건들이 마치 영화의 전경처럼 묘사되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黃錦樹의 <물고기뼈>, 賀巾의 <나는 한 그루 빈랑나무>, 梁放의 <슬레이트 지붕 위의 달빛>, 溫祥英의 <청교

22) 황진수 외, 고운선・고혜림 역, ≪물고기뼈: 말레이시아 화인 소설선≫, 지만지, 2015의 작품 해설 참조.

23) ≪물고기뼈: 말레이시아 화인 소설선≫에서 소개된 말레이시아 화인 소설 작가들을 기본으로 하였다.

24) 張錦忠, <在臺馬華文學與原鄉想像>, ≪中外人文學報≫ 22期, 2006.6, 93-105쪽, 고운선의 글 <경계인의 역사 반추하기-리융핑(李永平)의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雨雪霏霏)≫를 중심으로≫>, ≪코기토≫ 제79집,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138쪽 재인용.

www.kci.go.kr

도>, 李永平의 <망향>, 張貴興의 <포위된 성으로 진격> 등에서 특히 그런 점들이 잘 나타난다. 말라야 공산당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 또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상처, 일본군 전쟁 위안부 문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회의로 타이완으로 이주하게 된 이력 등등 다양한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이 아픔과 함께 각인되어 있다.

4.3 기타 지역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과 정체성

기타 화인 작가와 작품은 유럽 및 한국과 일본 등지가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화인들에 의한 문학 활동은 북미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처럼 광범위하고 장기간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화교들에 의해 출판된 잡지가 발견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던 북미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처럼 문학적 수준이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학적인 활동은 눈에 띠게 나타나진 않는다. 잡지에서 수필 혹은 시의 형태로 게재되는 글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지난함과 신분적 불안으로부터 오게 되는 주류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종을 이룬다. 물론 다른 지역의 화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화교는 오랫동안 귀화할 수 없는 한국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변화 되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들 민족의 영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감성이 생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25]고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오게 되는 배제되고 소외된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내적으로 억압된 심정과 주류 사회에 대한 분노, 혹은 화인 사회로의 내적인 긴밀한 결속의 강화에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화교화인들의 문학적 활동은 대표 잡지 중 하나인 ≪韓華≫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잡지의 성격은 문학적인 측면보다는 신변잡기, 화

www.kci.go.kr

25) "也許我不是韓國人, 對他們民族的靈山, 沒有多大的感受(…중략…).", 賀山, <大陸紀行>, ≪韓華≫, 韓中文化協會, 1990, 19쪽 참조. 양난, 고혜림, <韓國華人華文文學的混種性:以1990年代出版≪韓華≫雜誌爲中心>, ≪소설논총≫ 제47집, 2015, 232쪽에서 재인용.

교 교민 사회의 소식지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강하다. 드물게 나타나는 자전적 이야기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난한 역사를 대변하는 듯하다. 경제적 신분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과 문학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주로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장르를 좀 더 확대하면 三毛와 같은 수필가도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사하라를 유랑하며 정열적인 삶에의 의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그녀의 작품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긍정형 혹은 미래형을 살짝 엿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호의적이고 개척적이며 호기심 많은 성향은 글로컬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 못하더라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대륙으로부터의 화인 유학생 1세대인 20세기 초의 문학가들, 胡適, 林語堂, 徐志摩 등등부터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高行健까지, 그들이 잠시나마 디아스포라 신분이었던 동안 기록해 남겨 둔 자료들 역시 재조명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중국대륙 학자들의 중화주의와 타이완과 홍콩 출신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주장하는 탈 중화주의 시노폰(Sinophone)의 자기장 속에서 보다 새로운 각도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의 일환이 글로컬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디아스포라에 대한 담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현재와 미래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어왔다. 북미 지역의 화인 디아스포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www.kci.go.kr

화인 디아스포라, 기타 지역의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문학적 활동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의식, 민족주의적 문화 정체성, 거주국에서의 불안감과 유리감,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분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부(負)적인 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들은 피식민적 주체로서 완전히 주변화 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각이다. 디아스포라의 진행형은 양면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미래형은 글로컬리즘 시대에서 오히려 다면적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그 어느 곳에나 속할 수 있는 글로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과 아주 닮은 부분이 많다. 하지만 또한 그들과는 다르다. 강제된 이주도 아니고 세계 18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민족공동체적인 개념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서 협력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팍스 시니카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세상 속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미래에 이주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글로컬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될 잠재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세계는 점점 다문화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줄곧 한국식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 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역사서술, 하나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사회를 겪어내기에는 무리가 있게 된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 교육의 미래적인 방향 설정에도 의미가 있는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나 일시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수시 때때로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은 느끼게 되고 일면 나 외의 다른 사람에 속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규범에 복종하는 세상 속에서, 고아, 이방인, 불청객, 소외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www.kci.go.kr

"인간 사회가 지난 세기 동안 자신들 사회와 남들 사회 사이에 차이와 국경

은 만들기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이, 바로 그 차이와 국경을 없애기 위한 압력 아래에 놓여지게"[26] 된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접어 든 한국이, 그리고 누구든지 잠재적으로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소속의 총합으로 생각하게끔 고무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소속들의 총합을 단 하나의 최고의 소속으로, 배척의 도구로, 때로는 전쟁의 도구로 내세워진 단 하나의 소속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이 타고난 원래의 문화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소속을 마음의 격렬한 갈등 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본래의 문화에 접착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운 질환처럼 숨길 수밖에 없다고 느끼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이주 상대국의 문화에 자신을 열 수 있어야만 한다.(…중략…) 마찬가지로 사회 자체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정체성을 빚어내고 있는 여러 소속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회는 우선 각 개인이 자신의 주위에서 보는 것들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어 각 개인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이미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 자주 그런 것처럼, 불안해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찰자로 남아 있는 대신 사회에 직접 가담하는 용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27]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를 상반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보는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글로벌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줄곧 소외되었던 로컬은 이제 그 나름의 특수성과 발전가능성을 담보로 또 다른 대안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고민하는 정체성의 문제나 정체성의 위기는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심각한 고민으로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글로벌 속에서 로컬적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

www.kci.go.kr

26)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115쪽.
27)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191-193쪽.

면서 우리는 글로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차이와 차별로 나아가는 구분의 시대가 아니라 유사함과 보편성을 통해 소통과 안정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1) 국내자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역,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거자오광, 이원석 역, ≪이 중국에 거하라≫, 글항아리, 2012.

고운선, <경계인의 역사 반추하기-리융핑(李永平)의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雨雪霏霏)≫를 중심으로≫>, ≪코기토≫ 제79집,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117-155쪽.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년.

김경연・김용규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김기호,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변화하는 한국 화교의 이주민 정체성>, ≪아태연구≫ 제23권제3호,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2016, 157-189쪽.

김성수, <두 개의 글로컬라이제이션, 두 얼굴의 글로컬-글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을 배경으로 한 문화콘텐츠 기획의 허와 실>, ≪글로벌문화콘텐츠≫ 통권 제1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105-136쪽.

김혜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사회 정착과 화인정책 비교>, ≪평화학연구≫ 제15권5호, 2014, 201-222쪽.

김혜준, <시노폰 문학,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호, 2017, 중국현대문학회, 73-105쪽.

녜화링, 이등연 역, ≪바다메우기≫, 둥지, 1990.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서울: 이산, 2005).

마이클 크로닌, 임효석 역, ≪팽창하는 세계≫, 현암사, 2013.

맥신 홍 킹스턴, 서숙 역, ≪여인무사≫, 민음사, 1981.

www.kci.go.kr

바이셴융, 허세욱 역, ≪반하류사회・대북사람들≫, 중앙일보사, 1989.
빈센트 파릴로 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역, ≪인종과 민족 관계의 이해≫(서울: 박영사, 2010).
아민 말루프, 박창호 역,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양난, 고혜림, <韓國華人華文文學的混種性:以1990年代出版≪韓華≫雜誌爲中心>, ≪소설논총≫ 제47집, 2015, 223-239쪽.
에이미 탄, 박봉희 역, ≪조이 럭 클럽≫, 문학사상사, 1990.
우리화, 고혜림 역,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 지만지, 2013.
장시궈, 고혜림 역, ≪장기왕≫, 지만지, 2011.
천하오취안, 김혜준, 고찬경, 고혜림, 문희정 역,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지만지, 2015.
하진, 왕은철 역, ≪멋진 추락≫, 시공사, 2011.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5.
황진수, 고운선・고혜림 역, ≪물고기뼈: 말레이시아 화인 소설선≫, 지만지, 2015.

(2) 국외자료

Arif Dirlik, *Chinese On The American Fronti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Christiane Harzig and Dirk Hoerder with Donna Gabaccia, *What is Migration History?*, Cambridge: Plity Press, 2009.
Rey Chow, *Writing Diaspor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Shu-mei Shih,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集≫,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3) 웹사이트

http://qwgzyj.gqb.gov.cn/yjytt/183/2630.shtml (2016년 10월 30일 검색)

www.kci.go.kr

< Abstract >

Glocalism and Chinese Diasporas' Identity

Koh, Hye-lim

Chinese diasporas are the people who are spread worldwide and keep trying to cross national boundaries. They look similar with Jewish diasporas in one way that they are a group of immigrated people, however they are different from Jewish diasporas because Chiense diasporas are voluntarily moved ones. These people belong to the realm of global discussion. Also, they have a plural nature in terms of transcending various cultural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al with the Chinese literature as a glocal phenomena, has three meanings summarized below. Firstly, I seek to find contact points of both the diaspora and the globalized circumstances. Secondly, I presume the glocal which is a compounded word of global and local can be related to Chinese diasporas' identity. Lastly, I want to asses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cess of crisi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is not a unique case of the people who are in between or boundaries but the potential and future term of characters that could one day be a universal things.

All the efforts that the human society has made to build differences and frontiers between one society to other societies over the past century have been put under pressure to eliminate the differences and the frontiers of demarcation. Anyone can be diaspora at any time, so we have to focus diasporic discourse better than any time in history.

Key Words: Glocalism, glocal identity, Chinese diaspora, World literature, cultural translation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4. 30.	2017. 06. 03.	2017. 06. 12.	2017. 06. 19.	2017. 06. 30.

www.kci.go.kr